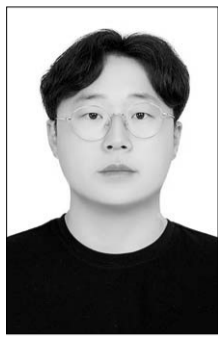


화재 초기 진화로 큰 피해 막은 집배원 '화제'

담양우체국 이현근 집배원, 화재 진압 앞장 '지역사회 귀감'

담양우체국에 근무하는 이현근 집배원(사진)이 식당 건물 화재 현장에서 초기진화에 앞장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이 인근 주민에 의해 알려져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현근 집배원은 지난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댁을 방문한 와중 담양군수북면 소재 식당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비치돼 있던 소화

기와 주변인들이 가져온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에 나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인근 주민들은 "이현근 집배원이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직접 격려해달라고 우체국에 찾아와 선행을 전했다. 이현근 집배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했을 것"이라며 "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근 집배원은 몇 년 전에도 금성면 배달 중 어르신 댁에 인가척이 없자, 평소 어르신이 중대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해 구급차 도착 후 어르신이 무사한 것을 확인 후 배달에 임했던 사실도 알려지며 훈훈함을 전했다. 소영준 국장은 "이현근 집배원은 평소에도 동료애가 좋아 타인의 일에도 적극 나서주고 있는 직원이다"며 "우체국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집배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포토뉴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매직 사이언스 콘서트' 주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 어린이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순 10회에 걸쳐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직 사이언스 콘서트'를 실시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장흥청아로타리클럽, 백혈병 환아가정에 후원금 기탁 장흥청아로타리클럽은 23일 백혈병 환아가정을 위해 후원금 310만원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장흥군 백혈병 환아가정에 책걸상, 컴퓨터, 침대, 옷장, 서랍장 등 공부방 환경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두바퀴사랑회·서구 화정3동 '집수리봉사' 큰 호응 광주 두바퀴사랑회가 지난 22일 서구자원봉사센터 및 화정3동 손잡고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집수리봉사를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달호 기자

광양시, 청소년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게이트키퍼(gate keeper)란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 상황에서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센터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변 친구의 자살 위험 신호와 도움을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9일 광영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4개교 중·고등학생 118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강금호 보건소장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며 주변에 자살위험이 있는 친구에게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역할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전남도교육청, 인공지능(AI)교실 50교 구축한다

창의적 협력학습 가능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전남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창의적 협력학습이 가능한 AI교실을 2021년 57교에 이어 올해 50교를 구축한다. AI교실은 노후화된 컴퓨터실을 개선해 인공지능 교육과 다양한 교과·교육 활동이 가능한 미래형 학습공간이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미래형 수업과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공간 설계 및 예산 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공간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구축이 완료된 학교 사례와 공간구축 사례집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은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교실을 특색있게 구축해주면 좋겠다"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31사단 조민재 부사관 부대 복귀 중 인명 구조



육군 제31보병사단(총장부대) 마천목대대 조민재 중사(사진)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 중사(사진)는 지난 6일 유격훈련장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진군 강진읍 일대에서 커브 길옆을 돌던 차량 1대가 커다란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간 조 중사(사진)는 먼저 사고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사고로 차량 앞 범퍼는 완전히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진 가운데 운전자는 충격으로 인해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동승자는 정강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 중사(사진)는 우선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의 머리를 지혈하며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후 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조 중사(사진)는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상태를 설명하며 상황을 인계했다. 조 중사(사진)는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큰 부상을 입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LH광주양산 주거 행복지원센터-시민사회복지관, 업무협약

입주민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맞손...행복한 동행 결연



LH광주양산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23일 시민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주공아파트 입주민을 대

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복지실천, 소외계층 발굴과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김가호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광주양산주거행복지원센터와의 협약으로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황승하 광주양산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제51년차 전남FFK전진대회 개최

'더 나은 미래 위한 꿈의 농업, 농업으로 꿈을 펼치다'



전남 농업계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FFK(Future Farmers of Korea) 회원들은 지도성, 협동성, 과학성을 기르기 위해 광양하이텍고등학교에서 지난 20일에 한자리에 모였다. 1972년부터 시작해 올해 51번째를 맞이한 전남FFK전진대회는 전남 지역 9개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

215명이 참여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익힌 기량을 19개 분야(전공경진 6종목, 실무능력경진 6종목, 과제이수발표 5종목, FFK골든벨, 글로벌 리더십경진)에서 겨루는 자리로 제 51년차 전국FFK전진대회에 참가할 전남 대표 73명을 선발했으며, 학생들의 축제의 장으로 운영됐다. /박종배 기자

순천시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 특강

내일 고영직 문학평론가 초청 '터무니 있는 로컬의 힘' 주제

순천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그가 살았으므로 그 땅은 아름다웠다. 터무니 있는 로컬의 힘'이라는 주제로 고영직 문학평론가의 초청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지역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교육, 순천형 문화도시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이 곧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영직 평론가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현상평론', '행복한 인문학',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자치와 예술', '생애전환학교' 등이 있다. 이번 특강은 순천문화재단, 순천문화원, 순천예총 등 순천시 문화예



술 관련 기관·단체 및 순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등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문화예술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으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함께 '문화예술 집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5·18민주화 열사의 삶 찾아 자전거 타기

장성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역민 함께 참여



장성교육지원청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열사의 삶을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를 실시했다. 이번 자전거 타기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자전거를 타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김동수 열사 기념비가 있는 서산초등학교와 열사의 생가터가 있는 장산리를 방문했다. 김동수 열사 유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르게 잊지 못한 것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열사의 삶을 되새기고 열사

의 절의에 대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 타기 행사에 참석한 김00은 "이번 행사는 장성군의 시민사회단체 들 간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어 5·18민주화운동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불의에 항거해 모두 함께 일어나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다. 후배들이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장성=심재식 기자